

통합 교육과정 운영 사례

통합
교육과정
운영
사례

통합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재해석해 학교, 학급, 교사 수준에서 학생의 온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말한다. 그 바탕에는 인간을 중요시하는 가치와 지덕체^{智德體}를 고루 갖춘 전인적인 인격체로 길러 내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통합 교육과정의 철학을 담기 위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하거나 교과 통합 수업과 체험 학습,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및 진로 활동을 연계한다. 더 나아가 지역 사회 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력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쳐 나간다.

통합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년 및 교과 교사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개별 연구보다 협력을 토대로 한 공동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의 개인 역량을 강조한 수업 연구 문화를 자발적, 협력적으로 바꾸어 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서원초등학교와 장곡중학교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사계절을 담은

생태 프로젝트 학습

주변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 프로젝트 학습은 '살과 배움이 알차게 영글어 모두가 행복한' 서원초등학교의 목표를 잘 담아낸다. 봄에는 텃밭에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작물을 심는다. 여름에는 생태 전문가를 초청해 학교 주변의 생태 환경을 학습한다. 가을에는 키운 작물을 수확해 마을 장터에서 판매한다. 겨울에는 판매 수익금으로 연탄을 구입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나누어 드린다. 이 모든 활동은 교육과정과 분리되지 않는다. 텃밭 작물을 정하는 일은 국어 시간에, 생태 관찰과 환경에 관한 수업은 사회와 과학 시간에, 판매를 위한 입간판 제작은 미술 시간에, 무게의 단위와 개수를 고려해 물건 값을 정하는 것은 수학 시간에,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연탄 나눔 활동은 도덕 시간에 이루어진다.

또 다른 시도,

새 프로젝트 학습

최근에는 프로젝트 학습의 주제를 학생들이 좋아하거나 관심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새 프로젝트 학습은 교실에 우연히 들어온 새를 관찰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착안한 것이다. 봄에는 학교 주변에 사는 새를 관찰하고 새를 주제로 설명문을 쓴다. 여름에는 새가 살아갈 집을 제작한다. 가을에는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다치는

생태 프로젝트 학습과 교과 연계

봄

국어
토론으로 텃밭 작물 정하기



여름

사회·과학
생태 관찰과 환경 이해하기



가을

수학·미술
텃밭 작물 판매하기



겨울

도덕
텃밭 작물 수익금으로 연탄 나눔 활동하기



겨울

사회·도덕
겨울새 먹이 나눠 주기



가을

국어
버드 세이버 붙이기 캠페인



여름

수학·미술
새집 만들기 위한 설계도 그리기



봄

국어
새에 관한 설명문 쓰기



일이 없도록 버드세이버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막기 위한 스티커를 만든다.

겨울에는 겨울새에게 먹이를 나눠 주고 교실 가까이 찾아온 새를 관찰한다. 새 프로젝트 학습 역시 교과와 관련을 맺는데, 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글을 쓰는 것은 국어 시간, 새집을 만들기 위한 도형의 이해와 각도기 사용 방법은 수학 시간, 새집 만드는 것은 미술 시간, 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은 국어 시간, 겨울새에게 먹이를 나누는 활동은 사회와 도덕 시간에 이루어진다.

함께 배우는 통합 교육과정

서원초등학교는 학급 인원이 적어 개별 학습은 유리하지만 협력 학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서로 다른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함께 배우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전교생이 함께 배우는 리듬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는 삶과 얹어 하나가 되는 통합 교육과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새 프로젝트 학습과 교과 연계

유물을 발굴하는 학생의 표정이 진지하다 못해 엄숙한데요, 무슨 수업인가요?

이윤정: 유물을 찾는 아이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나요? 학년 초에 만들어 땅에 묻은 유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장곡중학교에서는 교과를 통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흙 속에 담긴 낫선 기억을 찾아서'라는 고고학 프로젝트 수업 모습입니다. 벌써 8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점토로 만들어 학교 주변에 묻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물을 찾죠. 유물에는 모두 사연이 있는데, 유물과 관련된 인물, 장소 등에 관한 설화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물과 설화는 모두 자기 자신에 관한 거죠. 그래서 다소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세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업 소재가 재미있고 그 의미도 뜻깊은 것 같습니다. 수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윤정: 2010년쯤 '배움 공동체 연수'에서 동료 선생님과 수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역사 선생님께서 역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던 미술 선생님이 역사는 미술 교과 수업의 좋은 소재라고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보물 지도 그리기 활동과 조덕현 현대 미술 작가의 유물 발굴 퍼포먼스인 구름 마을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죠. 미술과 역사의 통합 수업을 제안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와 미술의 만남이라고 하니 잘 와닿지 않는데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윤정: 역사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역사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고, 그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의 이야기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역사가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미술 선생님께서 소개한 보물 지도 그리기와 유물 발굴 퍼포먼스는 역사와 관련이 깊은 소재입니다. 청동기, 철기 시대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는 유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물에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세

계관도 담겨 있어요. 지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고고학 프로젝트 학습은 역사와 미술의 접점을 찾아 통합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손으로 지도를 그리고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몸소 느끼는 거죠.

역사와 미술 통합 수업에다가 국어와 한문이 더해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군요.

이윤정: 네, 맞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설화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고, 설화를 직접 써 보는 활동에 관한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한문 선생님의 도움으로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유물이 묻힌 장소, 유물에 적힌 글자 등을 한자로 쓰는 활동도 추가했죠. 최근에는 마을과 연계한 '오이도 고고학 유물 발굴 체험'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경험한 학생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윤정: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교실 안팎을 넘나들면서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만들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지어 보기 때문에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데 흥미만 있었다면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흥미뿐 아니라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 수업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줘요. 예를 들어, 유물에 관한 설화를 한 편 쓰려고 해도 자기 자신을 현재가 아닌 과거의 존재로 상정해야 하잖아요.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등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수업이라고 하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데, 선생님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윤정: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수업에 대한 선생님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직접 재구성하고 설계하잖아요. 교사의 자존감이 높아지죠. 특히 아이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동안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사고가 변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수업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 교과 선생님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윤정: 규모가 비교적 큰 고고학 프로젝트 학습은 여러 교과가 함께하므로 교사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체 수업 목표를 헤치지 않으면서도 교과별 특성을 잘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교사 간 소통도 잘 이루어져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개인주의와 편의주의를 가장 경계하죠.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저희는 교사가 개인주의와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생님과의 교육 철학을 나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이 되면 교사 연수를 5일 동안 진행하는데, 이때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에 관한 것입니다. 장곡중학교에는 전학공이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데요, 전학공 외에도 ‘독서 토론’과 ‘수업 보기’와 같은 수업 연구 모임도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교육 철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수업 설계 및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의 교육 목적과 방향을 내면화합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통합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바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윤정: 현재 고고학 프로젝트 수업은 미술 선생님과 역사 선생님과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수업의 깊이를 더해 나간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수업에 관해서 누구와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즉 문화라는 토대가 우리

학교에 잘 닦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학교 문화를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부터는 통합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혁신부가 아닌 선생님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수업 연구회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후배 선생님을 독려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